

기적의 맞춤 법

띄어쓰기 1권 진단 테스트

정답 및 해설

1. ③ ★ 1단원 : ㄱ 받침을 살려 써요!

해설 ㄱ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ㄱ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지만 '자가요'가 아니라 '작아요'로 적어야 합니다.

2. ③ ★ 1단원 : ㅍ, ㅍ 받침을 살려 써요!

해설 '볶' 뒤에 '-음'이 오면 '볶음'이 [보کم]으로 소리 나고, '주셨' 뒤에 '-어요'가 오면 '주셨어요'가 [주셔쨌요]로 소리 납니다. 그렇지만 '볶'의 ㅍ 받침과 '셨'의 ㅍ 받침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3. 맛, 호박엿 ★ 1단원 : 받침이 [ㄷ]으로 소리나요!

해설 '맛, 호박엿'을 소리 내어 읽어 보면 각각 [맛, 호박엿]으로 소리 나지만, 쓸 때는 원래 받침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4. ② ★ 1단원 : 'ㄱ, ㄷ, ㅂ'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

해설 ㄱ 받침, ㄷ 받침, ㅂ 받침 뒤에 오는 'ㄱ, ㄷ, ㅂ, ㅅ, ㅈ'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기 때문에, '급식'은 [급씩]으로, '축구'는 [축꾸]로 소리 나지만 원래 글자를 생각해서 써야 합니다.

5. ② ★ 1단원 : 'ㄴ, ㄹ, ㅁ, ㅇ'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

해설 '열심히'에서 앞말의 받침이 ㅁ이기 때문에 '심'은 [썸]과 같이 된소리로 소리 납니다. 그렇지만 쓸 때는 원래대로 써야 합니다.

6. 계십니다 ★ 2단원 : 'ㄱ'이 들어 있는 낱말

해설 1번 '계십니다'는 '계십니다'로 고쳐야 합니다. ㄱ과 ㅋ은 헛갈리기 쉬운 모음이기 때문에, 'ㄱ'이 들어간 글자의 모양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.

7. ③ ★ 띄어쓰기 특강 3 : 앞말에 붙여 쓰는 말

해설 '은/는', '이/가', '을/를', '에', '의' 등은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. 그러므로 '와', '를'을 앞말에 붙여 쓴 ③이 정답입니다.

8. ③ ★ 3단원 : 뜻에 맞게 구별해서 써야 할 말

해설 '가리키다'는 '손가락으로 무엇이 있는 방향이나 물건 등을 보게 하다'라는 뜻이고, '가르치다'는 '지식이나 기술을 알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'라는 뜻입니다. 즉, ㉠에는 '가리키는'이 ㉡에는 '가르쳐'가 들어가야 합니다.

9. 소진이가 ㅍ 열심히 ㅍ 공부해요. ★ 띄어쓰기 특강 4

해설 꾸며 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과 띄어야 하기 때문에, '소진이가 ㅍ 열심히 ㅍ 공부해요.'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.

10. ① ㉠ ② ㉡ ③ ㉢ ★ 3단원 : 뜻에 맞게 구별해서 써야 할 말

해설 '버리다'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는 것을, '별리다'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는 것을 '별이다'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펼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①은 '별리고' ②는 '버리고' ③은 '별이고'를 넣어야 의미가 자연스러워 집니다.

11. ④ ★ 1단원 : 받침이 [ㄷ]으로 소리나요!

해설 '늦겠는데'를 소리 내어 읽어 보면 [늦겠는데]로 소리 나지만, 쓸 때는 원래 ㅈ 받침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12. 맞추고 ★ 3단원 : 뜻에 맞게 구별해서 써야 할 말

해설 '맞추다'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맞게 하는 것을, '마치다'는 하던 일이나 과정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퍼즐은 조각을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맞게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'마치고'가 아니라 '맞추고'라고 고쳐야 합니다.

기적의 맞춤 법

띄어쓰기 1권 진단 테스트

정답 및 해설

13. ① O ② X ③ O ★2단원 : 햇갈리기 쉬운 낱말

해설 '㉠모래'는 '모레'로 '㉡도아줄까'는 '도와줄까'로 '㉢진'은 '권'으로 고쳐야 합니다.

14. ① 술래잡기 ② 독수리 ③ 등불 ④ 눈사람 ★1단원

해설 ㄱ, ㄷ, ㅂ 받침과 ㄴ, ㄹ, ㅁ, ㅇ 받침 뒤에 오는 'ㄱ, ㄷ, ㅂ, ㅅ, ㅈ'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납니다. 즉, '술래잡기'는 [술래잡끼]로, '독수리'는 [독쑤리]로, '등불'은 [등뽕]로, '눈사람'은 [눈싸람]으로 소리 나지만 쓸 때는 원래대로 써야 합니다.

15. ① O ② X ③ O ④ X ★1단원

해설 받침 뒤에 글자가 모음자로 시작하면 받침이 뒤 글자의 첫소리로 옮겨져서 소리 나기 때문에 글자의 소리와 모양이 달라집니다. 즉 '①길어요 ②수박이 ③젖었다 ④깊어서'는 각각 [기러요, 수바기, 저졌다, 기퍼서]로 소리 나지만, 원래 받침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.